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공존 (共存)

'공존(共存)'이란 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할,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 현상이 함께 있을'을 나타낸다. 이치일 '공존'의 출발점을 찾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서 보일일 때가 있다. 살아가면서 바보처럼 어린이가 같은 질문을 던질 때가 있다.



박여범

용북중학교·시인 문학박사·문학평론가

바보 된? 언제부터? 어떤 이유? 우리가 '공존'한다고 이견 아니잖아? 등 다양한 질문에 간해버린 한다.

벼칠 전 아침, 다섯 시에 일어나 아침운동을 나섰다. 다섯 시엔 이른 시간이다. 그런데도 가족다위로 걷는 사람이 눈에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오늘은 한복한 길을 조용히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주 간년 기준 로스를 벗어나 논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어린 적 추억을 떠올리며 논길을 걷다보니 마음이 편안하다. 그리고 이런 것이 함께하는 진정한 공존이 아닌까? 생각하며 핸드폰에 녹음한 짧은 시(감정)를 읽어본다.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가지 않은 길에 서 보는 것은 어떤가

늘 가던 길을 걸어야 마음이 편한가

그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불안한가

편안함과 불안함을 한 방에 떨쳐버릴 방안은 무엇인가

-박여범, '공존' 일부-

나를 위해 선물이 필요한 시대다. 반복되는 일상이 소소하다고 스스로 위로하려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일상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을 먼 곳에 두지 마자. 가까운 일상을 바깥으로 보는 것, 그것도 많은 부분이 아닌, 일부만이라도 변화를 시도해보자.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 필요하

다. 너무 힘이 될 때에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 마자. 그냥 버티자. 버티는 그 자체가 이미 답은 승자다.

가볍게 발걸음을 옮기는 것부터 시작하자. 산천이 중요하고, 몸은 무겁지만 그 무거운 몸의 독소는 운동을 통해 배출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터벅터벅 흙냄새와 풀냄새 소리를 들으며 걸다 보니, 끝이 보이지 않는 고구마 밭이 나를 반겨준다.

고구마 밭 수변에는 나무도 많고 등성등성 눈에 들어오는 정원은 풍경이다. 혼자 눈에만 담아두기엔 너무나 아깝다. 길도 아름답고, 하늘도, 길가에 핀 이름 모를 야생화도, 비 내린 진흙길 풍도 그 어느 것 하나에도 잘못 탄성이 터져 나온다. 이대로 늘 걸던 길만을 고집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그 이후는 더 이상 적을 필요가 없다. 삶의 작은 약간 기쁨을 뿐인데, 머리는 가벼워진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거웠던 머리가 청소된

느낌이다. 작은 변화, 가던 길에서 잠시 벗어나니, 그 길은 새로움으로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 주고 있다.

시골에서 나고 자란 나는 어른에게도 30년의 도시생활에 적응해 살아 가는 지야를 만날 때면 더딘함이 천근만근이었다. 그런데 도시 출생은 '어쩔 그리도 잘 버티는지' 새삼 부러웠다. 나도 저렇게 여유 있고, 나를 재치로 찾는 그늘이 부러웠다.

내가 가는 길이 통근할 원이 되어 버린 오늘이다. 이 길에는 나뭇잎과 풀이 있다. 눈물이 날 것 같다. 다양한 각을 걸어보는 것, 그것도 어찌 보면 '가진 자의 여유' 라는 생각이 든다.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공존시대의 민초에게 깊은 어떤 의미일까? 주말이나 공휴일에 수면 공역이나 한적한 곳을 찾아 길을 걷는다는 것이 쉬지는 않다. 그것도 하나의 '사치'다.

다양한 시선과 길을 걸어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대로 늘 가던 길을 걸어야 마음이 편한가 그래도 우리는 시도하고, 시도해야 한다 자연도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사설

어느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 업체

동영상만 보면 돈을 준다는 어느 업체를 두고 사기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둘러막기 수법의 다단계 금융사기, 이른바 '폰지 사기'가 의심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폰지 사기(Ponzi scheme) 또는 폰지 게임(ponzi game)이란 투자사기 수법의 하나다. 실제 아무런 이유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정상적인 투자가 보장할 수 없는 교수익을 단기간에 매우 안정적으로 보장해준다고 광고한다. 이는 계속해서 훨씬 더 많은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지속이 불가능한 투자 형태이다.

새로운 투자자 돈으로 기존의 투자자 배당을 지급하는, 소위 이빨을 빼어 뒷물 고는 식이다. 유입되는 자금이 지급해야 할 액수에 결국 모자랄 수밖에 없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

다. 1920년대 미국에서 찰스 폰지(Charles Ponzi)가 벌인 파라마드식 금융 다단계 사기 행각에서 유래했다.

문제의 업체는 360만 원을 내고 회원 가입한 뒤 매일 일정한 영상만 보면 4만 원씩 준다는 인터넷 사이트 업체다. 경찰은 업체 대표를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입건했다.

중간체으로 알려진 이른바 원장이 전국적으로 20여 명으로 전래져 입건 대상은 늘어날 수도 있다. 업체 대표는 양질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라며 사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다만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들을 모은 일부 원장들 잘못으로 문제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른 시일 안에 단계적으로 환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회원들이 낸 가입비가 어디로 흘러갔고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사기 의도는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낙연-정세균 단일화 전망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선거 열기가 벌써부터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민주당 대선주자 컷오프 이후 후보들의 경쟁이 빨라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경기가 앞서 있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경선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낙연-정세균 후보 간 단일화 상사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 예비경선 과정에서 점수를 많이 얻은 사람은 이낙연 후보다. 특유의 지식과 안정감을 어필하면서 1위인 이재명 후보를 바짝 따라 붙었다.

사기가 오른 이낙연 후보 전북 선거대책위원회는 선거인단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세균 후보도 이광재 후보와의 단일화로 지지율이 다소 올랐고, 예선 탈락한 충남지사의 지지도 이끌어냈다.

정세균 후보 측은 전국적인 지지를 하나둘 모아 결승으로 직행하겠다고, 전북의 지지율도 곧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내 경선은 단순한 지지율보다는 최종 투표가 중요한

만큼 선거인단 모집에 역량을 모은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현재 모집을 마무리한 1차 선거인단은 다음 달 8월 중순 투표를 실시해 첫 번째 슈퍼위크인 8월 15일 발표한다.

2, 3차 선거인단은 별도로 모집해서 각각 8월 하순과 9월 초 투표를 진행해 둘째, 셋째 슈퍼위크에 발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1차 투표 이후 선두권 주자에 대한 쏠림현상이 나타나면 2, 3차 투표에 대비한 연대나 단일화가 가속화 할 전망이다. 때문에 1차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치고 나갈 경우 이낙연, 정세균 후보의 단일화 논의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세균 후보는 최근 이낙연 후보와 단일화할 생각이 없으며 독자적인 완주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다만 1차에서 정세균 후보가 독자적인 경쟁력을 보일 경우, 두 사람의 단일화 논의는 2차 투표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호남권 지지 기반이 상당히 겹치는 두 후보의 경쟁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유네스코 "리버풀, 세계문화유산 목록서 퇴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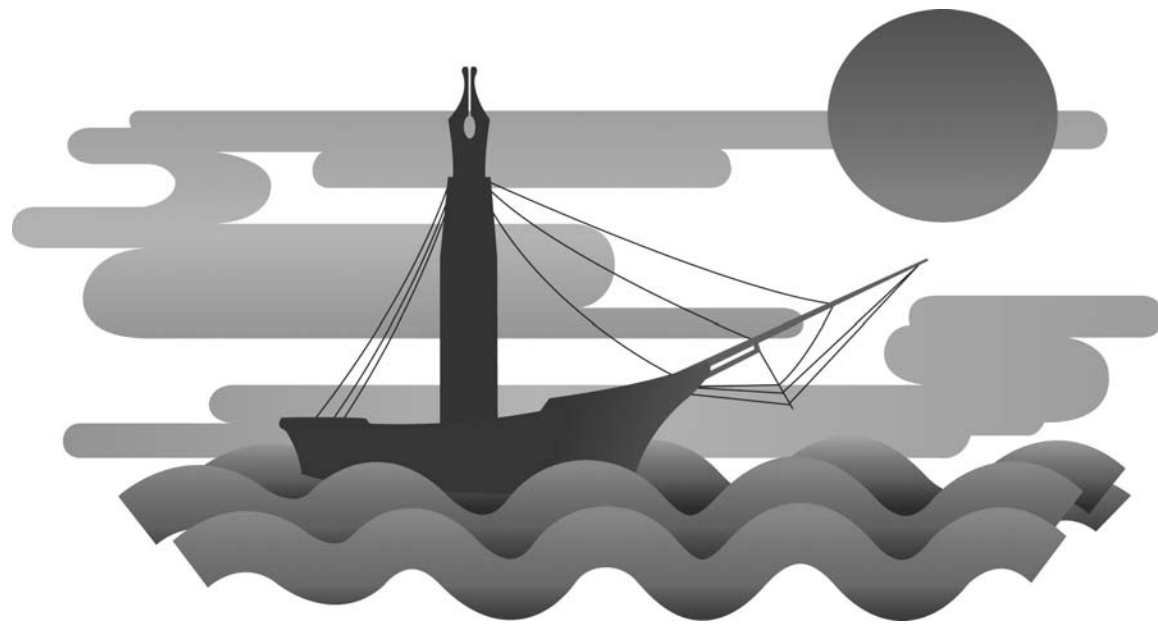
21일(현지시간) 영국 리버풀 피어헤드 지역에 세워진 비틀스 동상이 보인다.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리버풀을 세계문화유산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네스코는 "유산의 걸출한 보편적 가치를 나타내는 속성이 틀어질 수 없는 손실을 보았다"라며 그 퇴출 이유를 설명했다.

"해변서 놀자" 이스라엘 넘어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21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 들카를 인근 파문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이드 알 아드라' 둘째 날을 해변에서 보내기 위해 파손된 철조망을 통해 이스라엘로 건너가고 있다. '희생제'라고도 알려진 이슬람 최대 명절인 '이드 알 이드하' 기간 동안 이슬람교도들은 양이나 소를 도축해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 먹는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